“영규·조헌 합사 칠백의총, ‘금산의총’으로”

조계종연구소 ‘기허 영규’ 조명 세미나 개최

김상영 명예교수 대표 발제
“법전 써서 당상관 임명을”
영규 대사 공적, 유생도 인정
후대 고승들 ‘眞僧’이라 칭송
두 선열 충정 바로 선양 위해
금산칠백의총 명칭 변경돼야



조계종연구소는 12월 11일 ‘기허 영규의 의승 활동과 그 공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상영 명예교수가 대표 발제하는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호국·애민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 왜군과 맞섰던 기허 영규 대사와 의승, 의병장 조헌과 의병들이 금산칠백의총에 합사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로 기리기 위해서라도 의총의 명칭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12월 11일 서울 센트로폴리스 컨퍼런스 세미나룸에서 ‘기허 영규의 의승 활동과 그 공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표 발제자로 나선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영규 대사의 생애와 공적을 문헌과 비문 등 기록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조망했다.

당시 함께 활약한 휴정, 유정, 처영 스님과 달리 영규 대사는 스님으로서의 이력이나 문장이 없어 ‘사문 영규’의 삶은 추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19세기 고승인 응운 공여 스님이 영규 대사를 ‘진승(眞僧)’이라 표현하며 그 충정을 기리고 있음에 김 명예교수는 주목했다. 그는 “입적 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규는 단지 의승장으로서가 아니라 후대 승려들에게 참다운 승려의 위의를 갖춘 인물로 널리 존숭되고 있었다”고 봤다.

전쟁 초반 전사함으로서 다른 의승장들과 달리 빼어난 전과를 남기는 못했지만, 조선 후기 유학자들에게 존숭돼 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 명예교수에 따르면 금산전투 이후 9월 12일의 〈선조신록〉 기사에 따르면 선조는 영규 대사의 당상직 제수를 언급했고, 이에 윤두수가 “승려를 당상관에 제수한 것은 개벽 이래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의당 특이한 법전을 써서라도 임명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명예교수는 의총의 명칭 변경 등 최근 불거진 불교계와 문중 간 갈등을 언급하며 “영규 대상와 조헌의 관계는 단순히 전우 이상의 관계였을 것이다. 두 위인의 충정을 감안할 때 지금의 논쟁과 갈등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한글로 번역된 〈인봉전승업선생유고〉에서 ‘700의병의 의골과 300승병의 의골을 거뒀다’는 기록이 확인됐음을 상기한 김 명예교수는 “금산칠백의총은 금산전부에서 희생된 의병과 의승을 모두 합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래 전부터 ‘칠백의총’이라는 이름을 써 왔어도 그 명칭이 올바른 역사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개칭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이곳에 담겨 있는 숭고한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추모·선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 용례가 많이 발견되는 ‘금산의총’이 대안 명칭으로 적합하다”면서도 “현재 명칭이 지역사회와 문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장 명칭 변경보다는 영규 대사와 의승에 대한 예우를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늘 청춘의 마음으로, 99세까지 88하게!”

조계종복지재단, 12월 9일 칠순 · 팔순 봉사자들 격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2월 10일 조계종 자원봉사단 우수근속자원봉사자 시상식 및 9988 백수연을 개최했다. 사진은 칠순·팔순을 맞은 자원봉사자들을 축하하는 모습.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이 12월 10일 조계종자원봉사단 우수근속자원봉사자 시상식 및 9988 백수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 창립 30주년과 자원봉사단 출범 3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보살행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미자 단원(늘사랑회 팀장, 발경락마사지 전문봉사)의 표창 전달식을 시작으로 올해 칠순과 팔순을 맞은 단원 27명(칠순 22명, 팔순 5명)에게 표창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 근속 연수에 따라 선정된 우수봉사자 30명(10년 19명, 20년 11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하고 자원봉사 활동 성과 공유와 격려시간을 가졌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여러분의 발걸음은 부처님 자비를 일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낸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살행을 이어가 주시길 기대했다.

재단 본부장 동표 스님은 “묵묵히 자비나눔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의 헌신은 재단과 봉사단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돼 왔다”며 “이번 시상은 개인의 봉사 공로를 넘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함께해 온 공동의 걸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년 근속 우수봉사자이자 올해 칠순을 맞이한 사용배 집수리봉사팀 팀장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시작한 일이 자원봉사였고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계종자원봉사단은 1995년 재단 창립과 동시에 창단했다. 현재까지 누적 360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 강의수 14대 단장 임명

진우 스님, 12월 9일 임명장 수여 2년간 포교 매진 현 임원진 표창도



조계종은 12월 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교사단 제14대 단장 및 임원 임명식’을 봉행했다. 임명식 후 단체사진 모습.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12월 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교사단 제14대 단장 및 임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0월 선거에서 당선된 제14대 단장 및 임원들과 현재 소임을 보고 있는 제13대 임원들이 함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포교사단 총재인 진우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포교사들이 지역 교구본사를 비롯한 사찰 주지 스님들과 여법하게 소통해 포교사 간 화합을 두텁게 하고 지역 불교의 활기를 북돋우는 윤활유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스님은 종단이 직면한 출가자 감소 현실을 언급하며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든든한 수행·포교 인력이 돼 스님과 신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연결망이 돼 주길 바란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2026년 1월부터 2년간 임기를 시작하게 될 강의수 제14대 포교사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의수 단장은 10월 1일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어 14대 임원으로 함께할 신학균·안수빈 감사, 이미숙·박종안·정연숙·박은호·하용수 부단장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13개 지역단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유재 서울지역단장을 비롯해 박종안 부산단장, 최원영 대구단장, 정원희 대전세종충남단장, 정환근 광주전남단장, 강일수 전북단장, 김동아 강원단장, 한대수 충북단장, 정재호 인천경기단장, 이원환 경남단장, 김미숙 울산단장, 강윤호 제주단장, 박돈우 경북단장이 각각 임명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13대 전법포교 소임에 최선을 다한 임원들에 대한 전법상도 수여됐다. 김영석 13대 단장을 비롯해 김명동 부단장, 강민구 서울지역단장, 송재린 부산지역단장이 표창을 받았다. 경북지역단도 고운사 산불 화재 지원 등에서 활발히 활동한 공로로 전법상을 받았다.

김영석 제12·13대 포교사단장은 “이제 포교사로서 포교사단 사업비전 실현과 종단 종세 확장에 늘 힘쓰겠다”며 14대 집행부 출범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포교사들은 강의수 제14대 포교사단장의 발원문 낭독을 통해 새해에도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들은 “4800여 포교사들은 환희와 감동의 포교를 펼쳐나가며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함께 노력 정진 하겠다”고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직강화특별委 구성

12월 9일, 운영위원회 개최 조직강화 방안 모색 힘쓰기로


중앙신도회는 12월 9일 ‘중앙신도회 2025년 4/4분기 중앙운영위원회 및 송년만찬’을 개최하고 올해 사업들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2025년 마지막 중앙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올 한 해 다양한 사업들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신도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계종 포교부와 함께 조직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앙신도회는 12월 9일 서울 CCMM 빌딩 컨벤션홀에서 ‘중앙신도회 2025년 4/4분기 중앙운영위원회 및 송년만찬’을 개최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된 금번 회의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해 선임직 부회장, 자문위원, 전국 각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대표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안건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 보고’,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결과보고’가 있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결과보고에 이어 정원주 회장은 7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인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을 포함한 준비위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불자 자선 파크골프’를 주관한 김성태 제8교구본사 직지사 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원주 회장은 “올해 창립 70주년 사업이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준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제28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된 만큼 다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중앙신도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용식 사무총장은 “새해를 맞아 우리 조직을 되돌아보며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교구신도회와 신도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교부와 함께 조직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전했다.

중앙신도회는 12월 26~27일 해남 미황사에서 임원 템플스테이를 연다. 또 내년 3월 중국에서 성지순례를 가질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중림동 400년 약주 전통 잇는 ‘약현’ 개소

서울중림복지관서 개소식 인문 교육 · 어르신 일자리도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10일 개소한 전통주 문화 플랫폼 ‘약현’ 부스에서 어르신이 ‘약현’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400년 약주(藥酒)의 전통이 깃든 서울 중구 중림동에 지역 역사와 문화를 잇는 전통주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해경)은 12월 10일 관내에서 전통주 문화 플랫폼 ‘약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약현’이 지역 정체성을 담은 로컬 브랜딩 공간으로서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전통문화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약현’은 전통 약주의 유래지인 중림동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조성된 전통주 문화 플랫폼이자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장이다. 앞으로 ‘약현’은 전통주를 맛보고 배우는 공간을 넘어 어르신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잇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약주에 대한 역사성을 가진 중림동의 이야기가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다시 살아나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주 역사 인문 교육, 전통주 빚기 체험, 전통주 시음회, 전통주 샵 등 어르신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경 관장은 “중림동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약현’을 지역 정체성을 담은 로컬 브랜딩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고령세대의 경험과 경론을 활용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단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2-362-3348 임은호 기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송년의 밤’ 성료

12월 5일, 메이필드호텔서 자랑스런 동문상 범해 스님



사진 제공=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성행 스님)가 12월 5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불기 2569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사진·불국사 부주지)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는 동문 구성원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수행과 포교, 종무행정 현장에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이 중앙승가대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을 통한 격려사에서 “탈종교와 저출산, 고령화, AI 발전 등 산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한국불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앙승가대가 추진 중인 안암동 개운학사 선명상센터 건립불사는 학교 발전과 불교중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동문회는 학교 발전과 동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전 교육원장 범해 스님(약사사 주지)에게 ‘자랑스런 동문상’을,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에게는 ‘공로상’을,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 철우 스님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각계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원력상에는 신광사 주지 종문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에는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정인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현 스님이 각각 수상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환경연대, 22기 숲해설가 수강생 모집

내년 2월 7일~8월 23일 수업 산림 교육 · 숲 명상 등 진행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숲해설가 전문과정 제2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제22기 숲해설가 전문과정은 내년 2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전법회관 강의실과 남산·북한산·청계산·왕숙천 등 야외실습장이다. 프로그램은 △산림 교육 △산림 생태 △산림 휴양 및 문화 △자연놀이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숲 명상 △안전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이론과 현장 수업을 170시간 출석하고(필수 36시간 포함), 이론평가와 시연평가를 70점 이상 받으면 산림청 인증 숲 해설가 전문과정 이수를 인정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수료식은 내년 10월 17일이다.

숲해설가 전문과정은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숲의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삶의 통찰력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며 모집인원은 40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환경연대 홈페이지(www.budaeco.org) 참조. 02-720-1654 송정인 수습기자